



## 책 속으로

‘공부는 평생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송기술인들이야 방송현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알아야 할 것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각의 깊이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시각 정보만이 아닌 감성과 지식의 보고인 책을 다루어보면 어떨까 싶어 <방송과기술>에서는 ‘책 속으로’ 를 통해 읽을 만한 책 소개와 함께 기술인이 직접 읽고, 그 소감을 독자와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면의 부족으로 많은 책을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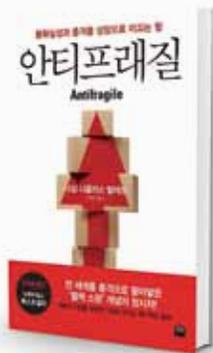


### 관계의 힘

상처받지 않고 행복해지는

레이먼드 조 지음 / 한국경제신문사 / 정가 13,000원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소통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상대방이 내 진심을 알아줄까, 나를 오해하지는 않을까, 혹시 배신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을 고립시킨다. 『관계의 힘』은 스스로의 식막한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하며,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 행복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다.



### 안티프래질

충격과 혼란을 이용하여 성장하는 힘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지음 / 안세민 옮김  
 와이즈베리 / 정가 28,000원

『블랙 스완』을 통해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블랙 스완 현상에 대한 해독제로서 ‘안티프래질’ 개념을 소개하고, 불확실성, 무작위성, 가변성, 무질서를 피하지 말고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한다. 뿐만 아니라, 신화, 혁신, 정치, 도시계획, 전쟁, 금융, 경제 시스템, 의학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종횡무진하면서 안티프래질의 특성과 안티프래질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 나, 스티븐 호킹의 역사

장애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한 그만의 이야기

스티븐 호킹 지음 / 전대호 옮김 / 까치 / 정가 16,000원

스물한 살에 생명이 2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고서도 그 후 50년간 최고의 이론물리학자로 불린 스티븐 호킹의 자서전. 중등학교의 학급에서 20등 정도를 한 평범한 소년이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최고의 이론물리학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담았다. 물리학의 세 가지 근원적인 이론들을 통합하여 우주의 실체에 한 걸음 크게 다가간 우주론의 성과를 이뤄낸 그만의 행복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다.



### 노란집

이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

박완서 지음 / 열림원 / 정가 13,000원

『노란집』은 고 박완서의 82회 생일을 기리는 때에 출간되었다. 제목처럼 바로 이 ‘노란집’에서 작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사연들을 들려주어 왔다. 수수하지만 인생의 깊이와 멋과 맛이 절로 느껴지는 노부부 이야기가 담긴 짧은 소설들과 노년기 또한 삶의 일부분이라고 말하며 삶에 대해 저버리지 않은 기대와 희망과 추억을 써내려간 작가의 소소한 일상을 엿볼 수 있다. 그가 말하는 행복하게 사는 법은 지극히 소박한 데서 발견하는 즐거움이다.

## 책을 읽고 나서

+ 이은영 YTN 기술연구소

미나토 가나에의 '고백'이라는 소설 첫 장은 한 여교사가 학기말 종례시간에 학생들에게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교사가 된 특별한 것도 없는 과정, 교사의 입장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일들에 관한 이야기,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이 HIV 바이러스 보유자로 밝혀지자 속도위반으로 생긴 딸 마나미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싱글맘으로 살아왔던 일. 어찌 보면 단순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한 단락 한 단락 읽어 내려갈수록 내용은 살인사건 속으로 빠져들어 간다.



고백  
미나토 가나에 지음 / 김선영 옮김

여느 때와 같이 유아원을 마친 아이를 양호실에 데려다 놓고 수업을 끝낸 후 아이에게 돌아갔을 때 교사가 발견한 것은 수영장에서 익사한 딸의 시체였다. 여교사는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사라 치부했던 딸의 죽음이 하나씩 발견되는 살인의 단서들에 그녀가 담임을 맡고 있는 두 소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과연 여러분이 이 여교사라면 어떻게 할까?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도 태연하게 등교해 매일매일 얼굴을 보고 있는 열세 살의 학생들에게 말이다.

여교사는 두 소년이 마시는 우유에 HIV 바이러스를 가진 딸의 아버지 혈액을 넣음으로써 복수를 한다. 여기까지 읽으면 잘 짜인 한 편의 추리소설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아이의 어머니이자 교사가 들려준 하나의 고백일 뿐이다. 고백은 다음 사람으로 계속 이어진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한' 윤리관이 하나씩 결핍되어 있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객관적인 인격체로 보고 복수하려는 선생님, 주위의 모든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소년A,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깊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소년B. 독자들은 인물들의 '고백'을 통해 가정환경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가진 인물들이 각각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를 직접 듣게 된다.

미나토 가나에는 이 작품으로 데뷔하여 일본 서점대상, '소설 추리' 신인상 등을 받으며 단숨에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다. 하지만 이 작품은 편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은 아니다. 실제로 아는 분이 내가 이 책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소설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을 정도다. 이것은 아마 우리 모두 깊은 곳 어디엔가 하나씩 결핍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작가가 제시한 사회의 단면이 현대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납득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미나토 가나에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꼼꼼한 짜임새와 담백한 말투로 이야기하여 어느새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해준다.

1학년 B반은 2학년 B반으로 이어지고 갓 전입해 온 새로운 담임을 맞아 또다시 일상을 이어간다. 과연 살인자가 있다는 것을 안 교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다면 오랜만에 서점에 가서 이 책을 펼쳐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단언컨대 몇 페이지 넘기지 않아 당신도 B반 교실 안에 있을 것이다.



### 윤미네 집

윤미 태어나서 시집가던 날까지

전몽각 지음 / 포토넷 / 정가 28,000원

1990년 1,000권 남짓 제작되었던 책, 20년 세월이 지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아직도 사진가들 사이에 꼭 봐야 할 책으로 여겨지는 『윤미네 집』은 바로 진정한 아마추어리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책이다. 태어나서 시집갈 때까지 딸의 모습을 26년 동안(1964년부터 1989년까지) 담은 아마추어 사진가 전몽각 선생의 끈기는 존경의 차원을 넘어선다. 끈기도 끈기지만 『윤미네 집』에는 큰딸 윤미씨의 성장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이 넘친다.